

공연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사업 시작

전주문화재단,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 추진 위해 공모 통한 공연예술단체 선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공연예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인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를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크라우드 펀딩과 접목해 모금 목표액 달성 시,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플러스가 해당 프로젝트 운영비 추가로 매칭해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10개팀이 지원, 뮤지컬 수 컴퍼니(대표자 박근영), 소리문화창작소 신(대표자 박신),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대표자 이유빈) 등이 선정됐다. 이후 목표 모금액 달성 시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플러스가 모금액의

최대 140%를 추가로 매칭한다.

또한 선정 단체가 후원자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할 수 있도록 모금 코칭과 더불어 단체와 작품의 홍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재단에 따르면 뮤지컬 수 컴퍼니는 2010년 500만 이상의 관객을 올린 영화 '하모니'를 원작으로 만들어낸 뮤지컬 '하모니'를 선보인다.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소리문화창작소 신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여자의 정절을 주제로 다룬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여자는 다 그래' 세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각색한 초연 오페라 '백작의 유혹'을 무대에 올린

다. 11월 3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진다.

끝으로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은 외국인에게 국악의 번영을 제공해 언어의 장벽을 허문 국악 공연 'Language Free! Korea Traditional Music Concert!'를 선보인다.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주 한옥마을 대시습청에서 관객과 마주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가들에게 뿌리깊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원자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후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지역의 선도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

진안군, 가위박물관 개관 7주년 맞아 특별기획전시 개최

진안군은 가위박물관 개관 7주년을 맞이하여 이발가위 연계한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 특별기획전시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열린다.

'브레드이발소'는 천재 이발사 브레드와 그의 조수 윌크가 베이커리타운의 디저트들을 꾸며주는 디저트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즌 1 방영을 시작하여 현재 시즌 3까지 방영되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전시에서는 이발가위 전시를 비롯하여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플레이하우스 등으로 작은 전시 공간에 알찬 구성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더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캐릭터 컬러링, 배지만들기, 캐릭터 장난감 놀이 공간 등 다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평일 방문객은 캐릭터 기념품 증정 이벤트(소진시까지)도 마련했다.

세계 유일 가위박물관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 있으며, 2016년에 개관했다.

가위박물관에서는 용담호 수몰지역인 수천리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철제가위 5점과 한국가위, 포도가위, 조지4세가 소장했던 가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가위를 전시하고 있다.



정성진 문화체육과장은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 특별기획전을 통해 박물관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 가위박물관은 가위처럼 늘 가까이 자주 찾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개최

민족통일김제시협의회, 평화 통일 염원

민족통일김제시협의회(회장 방관철)가 주최한 '2023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가 지난 20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날 행사는 각 단체·기관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평화를 향한 소원과 공감으로 채워졌다.

이날 통일음악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기념행사가 꾸며졌으며, 가수 및 연주 축하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방관철 회장은 기념사에서 "통일음악회를 통해 평화 통일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는 민족통일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김제시도



민족통일김제시협의회가 주최한 '2023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가 지난 20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염원과 화합,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통일음악회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협연 함께 할 시민합창단 모집

익산시립합창단이 익산시민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공연하는 멋진 추억을 제공한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는 10월 19일에 개최할 제86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공연을 함께 할 시민합창단을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합창단은 익산시에서 활동 중인 25명 이상의 합창단으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의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전연습과 공연 당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된 시민합창단 중 최종 4~5팀 정도가 선발되며, 결과 발표는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사전연습

일정은 단체별로 익산시립합창단과 지휘자가 순회하며 진행되고, 다음 달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익산시립합창단 제86회 정기연주회는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참가신청서와 연주 영상 2곡 이내 영상 파일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zurigo@naver.com)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23일-9월 1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차 참여자 모집을 통해 30여명을 선정했다. 현재 이들은 최소 7박, 길게는 29박까지 전라북도를 자유롭게 여행 중이며, 개인 SNS에 여행 후기를 올리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참여자 모집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 간 이뤄진다. 모집 유형은 도외 일반인 전형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총 1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숙박비(1박 당 70,000원), 체험비(1회 50,000원, 최대 3회 지원), 여행자보험료(1명 당 25,000원)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개인 SNS에 사진 또는 영상 후기를 올리고, 전북 체류관광을 홍보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에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에서 직접 생활해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